

구례군 섬진강 수해 신속 배상 요구

김순호 군수, 환경부장관 만나
“실질적 피해구제 적극 지원”
섬진강환경청 신설 등도 건의



김순호(오른쪽) 구례군수가 지난 3일 한정에 환경부장관에게 수재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 등을 요청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도심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던 구례군이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구례군은 김순호 군수가 지난 3일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만나 섬진강 수해 피해 1년이 지나도록 일상복구가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1년이 된 지금도 48가구가 임시 조립 주택에 거주하는 등 수재민들의 일상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과 구례군 유치, 발달기습급보급자리 사업 운영비 지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섬진강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최적지는 섬진강 본류 수계의 중심부에 위치한 구례군이다”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구례군은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18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민간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2차 손해사정사 용역을 실시해 4890건, 1126억 원의 피해산정을 마쳤다. 댐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한 인재의 성격이 있다는 수해 원인 용역 중간결과 발표에 따라 군은 민간

수해대책위와 합동으로 구례군 환경분쟁조정 신청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최종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지난 7월 31일까지 열흘간의 접수 결과 총 1818명이 1042억 원의 피해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00%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자원봉사 체험 수기·사진 공모

고흥군은 자원봉사활동 체험 수기 및 사진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고흥군 자원봉사 공모전’은 진솔하고 감동적인 봉사 경험을 공유해 나눔과 봉사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더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부터 공모전을 시작했으며 공모 부문도 신설 및 개편했다. 공모 부문은 체험수기 부문과 사진 부문으로 심사를 통해 10편을 선정해 오는 12월에 개최하는 제18회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한다. 응모 자격은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가입자

로 지난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군민이나 타 시·군 주민으로 고흥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관내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도 참가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원봉사 공모전에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이 더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엔 신설된 사진 부문에 장년층이나 청소년층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성청소년과 희망 나눔 팀(061-830-6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낙경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매실농가 정지·전정 인력 지원

광양시가 매실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과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매실농가의 노동력 확보와 영농비용 부담 경감,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 유도를 위한 시책이다. 시는 올해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약 93ha 규모의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7일까지 주수지 또는 과원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가별로 인력지원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농가에 정지·전정 인력을 지원해

매실과원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정기술 인력은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고령농이나 여성농업인, 거동이 불편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정정기술이 부족한 농가에는 현장에서 정지·전정 기술지도도 병행한다. 이영만 광양시 매실원예과장은 “매실농가 정지·전정 인력지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단비와 같은 사업”이라며 “고품질 매실 생산의 첫걸음으로 광양매실 경쟁력 확충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유리온실에서 농가에 보급할 씨감자를 선별하고 있다.

포스코-광양시, 함께하는 ‘취업컨설팅’ 눈길

10일까지 100여명 모집
직원들이 1대1 멘토링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지용)는 지난달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컨설팅’ 참여자를 모집해 직원들과 1대1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역 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광양시와 함께 ‘취업컨설팅’을 마련했다.

개인별 취업 목표 설정부터 진로상담·자기소개서 첨삭·면접 코칭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코-광양시와 함께하는 취업컨설팅’은 일 반적인 채용 프로세스에 맞춰 프로그램을 직무 및 취업 세션으로 나눠 각각 집중적인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자가 취업 멘토와 1대1로 맞춤형 멘토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취업역량 향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공별로 멘토를 선정해 직무, 취업 방법, 회사생활 등 취업 선배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

용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채용 트렌드, 자소서 작성법, 면접 등 취업에 필요한 팁을 제공한다. 또 최근 취업시장 트렌드에 밝은 신입사원 엔지니어들과 인사부서 실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실질적이고 생생한 취업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본인 또는 부모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시 소속학교, 전공, 학년, 희망직종 및 자기소개서(권장)를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에 AI 자원 회수로봇 시범운영 캔·페트병 자동 선별 보관

순천시가 업사이클센터와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에 인공지능(AI) 자원 회수로봇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자원회수로봇은 재활용품 선별·회수율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다. 자원회수로봇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 기반 시설로, 빈 캔이나 투명 페트병을 투입구에 넣으면 인공지능센서가 캔과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압축하고 보관하게 된다. 기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내부 저장공



간이 가득 찰 경우 사물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관리업체에 상황이 전달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또 수거-선별-압축-보관이 동시에 이뤄져 현행 방식의 재활용 과정보다 짧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시민들은 캔, 투명 페트병을 분리수거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캔과 투명 페트병은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개인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씨감자 2.4t 지역 농가에 공급

보성군이 오는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씨감자 2.4t을 지역 농가에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씨감자는 조직배양과 양액재배를 통해 생산한 최상위단계(기본종)의 가을재배용 씨감자이다. 크기가 작아 농업인들에게 공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부터 소과경(2~50g)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발전시켜왔다. 소과경은 정부 보급종(50~250g)과 비교했을 때 같은 면적에 종자가 4분의 1 가량만 들어가 효율성과 생산성이 뛰어나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절단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파종이 편리하며, 수확량이 안정적이어서 농가 선호도가 높다.

보성군은 올해부터 국내 육성 신품종 지역 적응성 검증으로 선발된 ‘금산’과 ‘은산’ 씨감자 기본종도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신품종 감자는 봄·가을 2기작 재배가 가능하며 기존 품종(수미·추백)보다 내병성과 생산성이 뛰어나다. 특히 식감과 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권현주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성감자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 무병 씨감자 생산 공급과 신품종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보성에선 1220ha의 면적에서 감자가 생산됐다. 씨감자 수요도 연간 2200t에 달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